

투어 번호
LK9GKFPMHG

라마야나 트레일(6일)

6일 · 5박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6일 투어는 스리랑카 전역의 라마야나 전설을 따라가며 산악 지역에서 남부 해안까지 라마, 시타, 라바나, 하누만과 관련된 유적지를 연결합니다. 콜롬보 공항에서 출발하여 Lakpura® 전담 기사 가이드가 운전하는 개인 에어컨 차량으로 캔디, 누와라 엘리야, 엘라, 얄라, 카타라가마, 갈레를 거쳐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여행객들은 서사시와 연결된 사원, 자연 유적지, 야생동물 지역을 이동하며, 누와라 엘리야 근처의 시타 아만 사원과 디부룸폴라 사원, 엘라의 라바나 폭포, 우상고다의 황량한 고원, 갈레의 전설 관련 언덕인 루마살라를 방문합니다. 신화 유적지 외에도 일정에는 캔디의 신성한 치아 사원, 캔디안 전통 무용 공연, 얄라 국립공원 지프 사파리, 카타라가마 사원, 갈레 요새 도보 투어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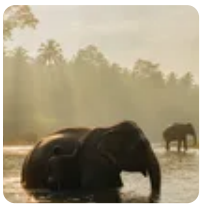
이 루트는 문화유산, 사원, 국립공원 사파리를 결합하여 라마야나 스토리의 관점에서 스리랑카 남부 및 중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국가의 잘 알려진 문화유산 및 야생동물 명소를 다룹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피나왈라 → 캔디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맞이하여 캔디로 이동하며, 저녁 문화 공연 전까지 숙소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밀레니엄 엘리펀트 파운데이션

피나왈라 인근에 위치한 가족 운영 기관으로, 가축화된 코끼리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코끼리 타기 대신 윤리적으로 코끼리와 가까이에서 교감할 수 있는 엘리펀트 워크 체험을 제공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문화 공연

전통 스리랑카 무용을 선보이는 1시간짜리 저녁 공연으로, 불춤, 칼춤, 그리고 드럼 연주에 맞춘 캔디안 댄서들의 공연이 포함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2 Kandy → Nuwara El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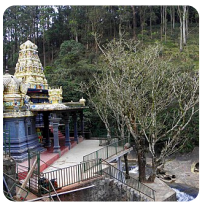
After checking out of Kandy, the day covers the city's most sacred Buddhist site before heading into the hill country to places linked with the Ramayana, continuing on to Ella in the evening.



Temple of the Sacred Tooth Relic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uilt in the 16th century to house and protect the sacred tooth relic of the Buddha, with elaborately painted halls and carved pillars.

A.Savin · FAL



Sita Amman Temple

A temple near the Hakgala Botanical Gardens with statues and paintings depicting the story of Rama and Sita, built on the spot where Sita is believed to have been held.

Buddhika Mawella · CC BY-SA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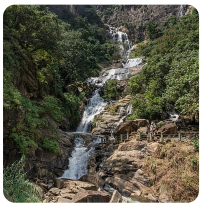
Divurumpola Temple

The site where Sita is said to have undergone her Agni Pariksha to prove her fidelity to Rama, where local people still come to swear oaths today.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3 엘라 → 얄라

체크아웃 후, 이날은 라마야나 전설과 관련된 폭포를 방문한 뒤 얄라로 이동합니다.



라바나 폭포

고산지대에 위치한 폭포로, 전설에 따르면 라바나 왕이 납치한 시타 공주를 폭포 뒤 동굴에 숨겼다고 전해지며, 라마의 왕비가 그 아래 물웅덩이에서 목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A.Savin · FAL

Day 4 얄라 → 카타라가마 → 얄라

이날은 얄라 국립공원에서의 이른 아침 사파리로 시작하여, 저녁에는 지역의 주요 사원을 방문한 후 호텔로 돌아옵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을 지프로 둘러보는 3시간짜리 사파리로, 표범, 야생 물소, 나무늘보곰, 코끼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카타라가마 사원

카르티케야 수브라마니암 신을 기리는 사원으로, 라마야나 전쟁 중 라바나의 무기로부터 라마를 보호했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으며, 매일 과일과 향을 올리는 푸자 의식이 진행됩니다.

Ghostface Buddha · CC BY-SA 2.0

Day 5 얄라 → 우상고다 → 루마사라 → 갈레

이날은 얄라에서 남부 해안으로 이동하며, 하누만과 관련된 황량한 해안 지역을 둘러본 뒤 갈레에 도착하여 같은 전설과 관련된 바위를 방문하고 옛 요새를 걸어서 둘러봅니다.



우상고다

독성이 있는 사문암 토양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는 해안 고원으로, 라마야나 전설에 따르면 하누만의 불타는 꼬리에 의해 그을렸다고 전해지며, 라바나의 비행 전차가 착륙한 장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A.Savin · FAL



루마사라

우누와투나 인근의 언덕으로, 정상에는 하얀 불교 다고바(탑)가 있으며, 히말라야의 드로나기리 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으로 여겨지며, 한때 시타가 이곳에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갈레 요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시기에 건설된 잘 보존된 요새로, 박물관, 등대, 그리고 자갈길이 있어 도보 투어로 둘러보기 좋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6 갈레 → 칠라우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마지막 날은 갈레에서 칠라우로 이동하여 힌두 사원을 방문한 후 공항으로 향합니다.



문네스와람 사원

시바 신을 기리는 고대 지역 힌두 사원 단지로, 전설에 따르면 라마야나와 그 영웅왕 라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Leon Meerson · CC BY-SA 2.0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r accommodation, cost of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but subject to change at the time of booking.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